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01

- 윤인숙 박사(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추진경과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평가
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의 전환
4. 한계와 과제

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추진현황

추진경위

2005.4
대통령 검토지시

2005.8
대통령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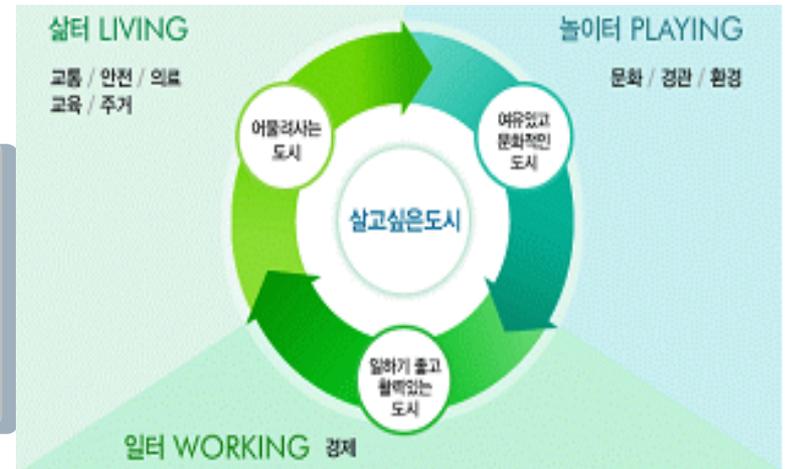
2006.11
시범사업 공모

2008.3~
도시대학 운영

2005년 이후 주민참여와 지자체 주도의 특화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과 정책기반구축 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

살고싶은 도시 개념

- 어울려 사는 도시
 - +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 + 여유있고 문화적인 도시



5대 정책추진기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공론화

학습화

시범사업

정책기반

지원체계

- 정책토론
- 워크숍
- 방송물제작
- 시민과도시 발간



- 마을만들기 포럼
- 교재발간
- 시범학교 운영
- 학습프로그램 개발



- 2007년 36개
42억원 지원
- 2008년 32개
33억원 지원



- 도시포털
- 도시의 날
- 도시대상
- 도시건축도서관



- 도시만들기위원회
- 도시만들기지원센터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평가

5대 정책추진기반 성과평가 - 설문조사(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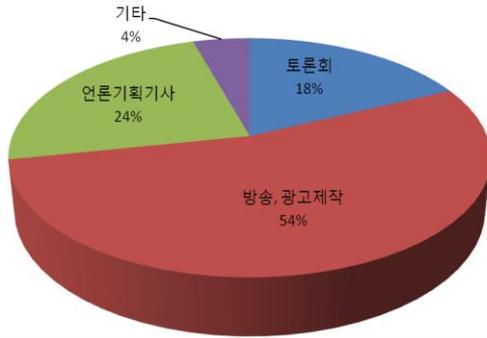
- 살고싶은 도시정책 평가,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설문조사
 - 2006~2008년 추진된 정책사업 평가, 각 정책수립을 위한 적절한 방법 조사

- 대상
 - 공무원(58명): 시범사업담당자,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과
 - 시민단체(77명): 지방의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공 초록사회만들기 참여단체
 - 전문가(52명): 건축·도시계획 관련 연구원 및 교수, 실무 종사자
- 설문기간: 2008.12.30~2009.01.12

정책추진을 위해 적합한 수단

개선방안

공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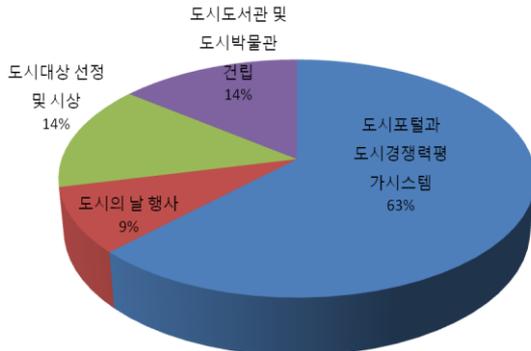
-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 효율(방송·광고, 언론기획기사)
- 시민참여프로그램, 공모, 홍보 등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필요

학습기반



- 도시대학(정부나 지자체 운영)을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도자양성이 중요

정책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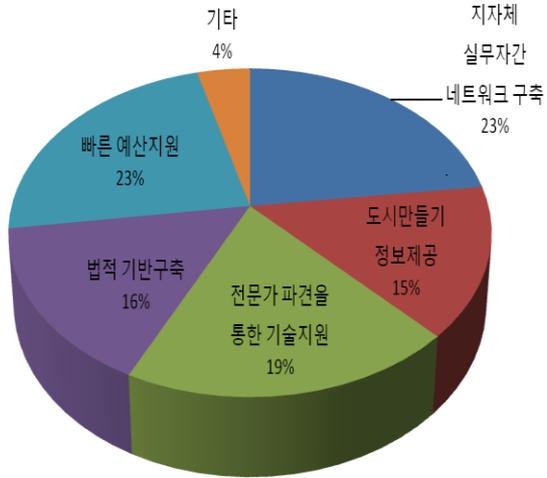


- 도시의 날 행사 참여는 저조
- 도시포털 등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을 중요하게 평가

정책추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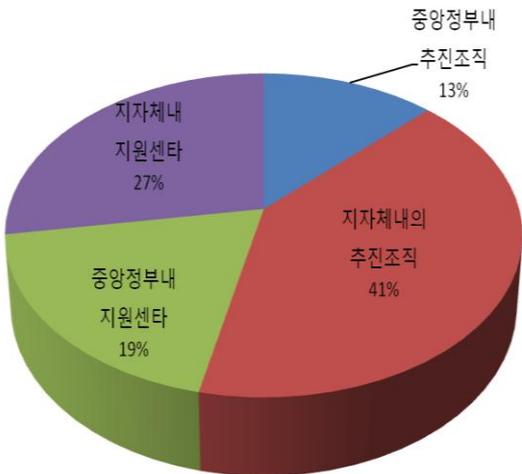
시
범
사
업



- 공무원: 물리적 수단을 우선 고려
-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우선 고려
- 그룹간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별도 조직 운영이 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공무원	빠른 예산 지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지자체, 실무자간 네트워크	도시만들기 정보제공	법적기반구축/기타	
시민단체	지자체, 실무자간 네트워크	법적 기반 구축	빠른 예산 지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도시만들기 정보제공	기타
전문가		도시만들기 정보제공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법적 기반구축		

지
원
체
계



- 지원체계는 정부보다 지자체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
- 지원체계로서, 공무원과 전문가는 추진조직을, 시민단체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

총괄 평가

긍정적 효과

-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체계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추진-도시대학 등
-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만들기에 대한 관심 유도
 - ☞ 도시만들기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인식 확산

한계점

- 타 부처 유사정책과 중복, 혼란
- 정부 전담인력 부족으로 대국민적 정책확산에는 미흡
- 지자체내 추진조직, 지원체계구축(전담부서, 지원센터, 자원마련 등) 미흡

개선방안

- 타 부처 유사정책, 유사사업과 통합
- 지자체 도시관리 기능과 연계, 지자체 역량 및 역할 강화

참고 - 타부처 유사정책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지역	신활력
소관부처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추진프로그램	5대 정책기반	-	-
지원체계	도시만들기 위원회 도시만들기 지원협의회	지역만들기 추진단	추진협의체 신활력사업단 지역혁신협의회
부처내 유사사업	개발촉진지구	소도읍 육성 아름마을가꾸기 정보화시범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정주권개발
'07 시범사업	시,군,구(도시지역)	시,군(농촌지역)	농촌지역
	36개 (도시11, 마을25)	204개 (지역 47, 마을 157)	70개 (시 6, 군 64)
	단년지원 (142억원)	3년지원 (702억원)	3년지원 (5,800억원)

참고 - 지원센터 설치

- 중앙에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설치 (주택공사가 위탁)
 -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지자체 스스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안산시)
 - 국토부 시범사업 추진후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설치
 - 민간(안산YMCA)이 위탁운영 (현재 4년차)
 - 2009년부터 시범도시사업 선정시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 행자부사업인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서도 유사 지원체계가 설치됨
 - 순천시 살기좋은지역만들기위원회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
 -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
 - (지방의제21 산하의 부설센터에서 발전)

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의 전환

정책개요

- 2009년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수립
- 2010년 기초생활권에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도시활력증진지역 /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 일반농산어촌지역 / 도서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은 97개 지자체 / 일반농산어촌은 120개 지자체
- 도시활력사업은 기존에 부처별로 시행하던 16개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단일 예산으로 추진

▶ 16개 개별사업

- 국토부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주거환경개선/개발촉진지구
- 행자부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소도읍육성
- 농림부 : 신활력/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어촌종합개발/전원마을조성/도서종합개발/ 기계화경작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지표수보강개발/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2010 사업유형

- 도시활력재생 : 살고싶은도시,소도읍,신활력,주거환경개선
- 마을활력재생 : 살기좋은지역,농촌마을종합개발,농촌생활환경정비,어촌종합개발
- 기반시설정비 : 기계화경작로,농업용수개발,소규모용수개발,지표수보강

2011 사업유형

- 주거지재생
- 중심시가지재생 – 도시활력의 중점사업 (과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역량강화 – 소프트웨어 중심사업

▶ 지원센터의 기능

- 지원사업 실무지원, 추진협의체 운영, 전문가파견
- 주민참여프로그램, 포럼, 주민학습프로그램 운영
- 자체 공모사업 추진

▶ 기존 지원센터 현황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YMCA 위탁)
- 대구시 동구/남구지원센터 (대구대 위탁) / 인천시 부평구지원센터 (인하대 위탁)
-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정연구소 산하에 설치)
- 수원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5월, 민간위탁 예정)
- 순천시 지원센터 조례 입법예고중 (운영방식은 미정), 기타 광주, 청주, 강릉(민간단체)

▶ 의무화대상

- 2011년 : 당해년도 지원비가 5억원 이상인 지자체
- 2012년부터 : 총지원비가 15억원 이상인 지자체

4. 과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성과 :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의 양적 발전



도시의 질적 발전

물리적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창조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중심

행정(官)과 전문가 주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

광역계획과 거대 인프라 중심



미시적 생활공간과 공공적 장소에 대한 강조

철거재개발 위주의 도시재생



수복형, 마을만들기형 도시재생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한계와 과제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주민참여



계획수립과정의 실질적 주민참여

물리적 환경조성 위주의 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파급효과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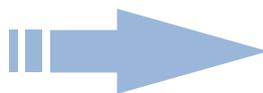


민간주도적 지원센터 설치

일회성 지원사업



지속적 도시만들기로 연결



▪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속적인 주민참여 도시만들기의 기반 구축

감사합니다